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 물건너가나

연구자원 없는 호남권 절대 불리 평가무용론까지 ‘술술’
“국가균형발전’ 별도 분리 가중치 상향해야” 여론 비등

〈속보〉전남도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이 평가기준 불공정 논란 확산 속에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는 인근에 연구자원이 없는 지자체는 사실상 공모 참여가 제한되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와 배치되는 평가 항목으로 인해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평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8일부터 시작될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평가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국가균형발

전’을 분리해 독립 평가 항목으로 구성한 뒤 가중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관련기사 5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4세대) 구축 사업’ 부지 유치 공고와 관련,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기부 공고 발표 직후 평가 기준 선정 과정을 놓고 투명성·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평가 항목 중 ‘현 자원 활용 가능성’은 인근 지역 연구자원을 만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공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속기 시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표라는 지적이다.

또한 평가 항목 중 ‘미래자원의 확장 가능성’의 경우 인근 연구자원이 많은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가 아닌 구축 이후 해당 인프라를 지역산업에 활용·연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지 않아 인근에 연구자원이 없는 호남권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국가 균형발전 기여’ 항목을 반영하고 있지만 내용상 이질

적인 ‘미래 자원의 확장 가능성’의 하부 지표로 격하했다. 형식적인 기준 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균형발전 항목 평가 기준 격하는 문재인 정부가 5대 국정목표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포함시켜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 추진하는 것과는 정면 배치된다.

국정과제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유치 등 클러스터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균형발전 비중을 확대 적용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지역균형 배점 비중 25~35%→30~40%)과도 맞지 않

다. 방사광가속기 역시 유치 지역 결정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평가의 타당성·공정성이 결여된 현 평가항목을 재조정하고 별도의 객관적 평가지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재의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접근성이나 인근 연구자원보다는 구축 이후 연구자·산업계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만큼 ‘현 자원 활용 가능성’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범라인 운영방안, 인력 지원, 데이터 분석지원 방안 등의 평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나주를 비롯해 인천 송도, 충북 오창,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5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난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선정은 8일 유자의향서 접수를 시작으로 유치계획서 접수(4월 29일), 발표 평가(5월 6일), 현장 확인 및 최종 평가(5월 7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8천억원을 포함, 총 1조원이 투입된다. /김재정기자



‘승리 다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8명의 후보들이 6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정책공약 발표회를 갖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예리기자

민주당 광주시당, 총선 정책공약 발표회

‘어제-내일 잇는 미래도시 ACE 광주’ 슬로건

4·15 총선 ▶관련기사 3·4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6일 시의회에서 4·15 총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공약집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서구갑)과 윤영덕(동남갑), 이병훈(동남을), 양향자(서구을), 조오섭(북구갑), 이형석(북구을), 이용빈(광산

갑), 민형배(광산을) 등 출마 후보 8명이 함께 준비한 정책비전과 대표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어제와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ACE 광주’를 메인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공약집에는 광주의 역사와 5·18 40주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정의로운 미래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당과 후보들의 고민이 정책공약과 실천과제로 담겨있다.

ACE의 ▲A는 AI(인공지능)과 Aut

omobile(자동차, 광주형일자리) ▲C는 Culture(아시아문화중심도시) ▲E는 Energy(에너지밸리)로 광주의 미래비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천년을 꿈꾸기 위한 5대 정책비전’으로 ▲혁신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행복한 도시 ▲안전하고 정의로운 따뜻한 광주공동체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을 제시했다.

참석 후보들은 차례로 낭독한 지역 대

표공약을 통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 5·18 광주정신 계승, 사람이 물러드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미래자동차 전진기지 구축, 글로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시즌2로 공공기관 유치 등을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공약집에 담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후보들의 약속을 집권여당의 힘으로 빠짐없이 실천할 것”이라 강조하며 “민주당과 광주가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선두에서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이지자

노사민정협 ‘광주형일자리’ 해법 모색

9일 오후 첫 회의…노동계 협정서 파기 대책 논의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파기와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를 다시 설득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광주 노사민정협의회의 월례 제1차 회의가 9일 오후 2시 광주 빛그린 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 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는 지난 2일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5명 중 노동계 인사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의장, 부의장 2명,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4명이다.

이날 회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과 근로자를 위한 공동복지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계의 협약 파기에 따른 후속 대책, 구체적인 노사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논의가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용역은 지난해 1월31일 체결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가 ‘상호 협력’ 등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협정 이행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한국노총가 이견이 엇갈리는데다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이 한 몫했다는 평가도 있다.

연구 용역에서는 노사상생 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원하청 상생협력 체계 구축, 노사 소통·투명 경영 실현, 노사상생 구현 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상생 방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용역 단계에서부터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용역 기관 선정에서부터 노동계, GGM 등과 협의하고 수행 이후에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종 용역 결과는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GGM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호남 최초 융복합 미디어 **광주매일TV**

광주매일TV KCTV광주방송 오성수의 이슈 분석 · 3월 셋째주

[스타브랜드] 박진수부각

[파워인터뷰] 정강한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회장

m.kjdaily.tv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사정문의 062)650-2024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제7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원우를 모십니다!

광주·전남 각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7기 원우모집에 귀하를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7기를 맞는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그동안 인문·경영·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격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전국적으로 명강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지재CEO와 리더들이 보다 큰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

- ◆ 창조 ·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 **고품격 강의**
- ◆ CEO와 리더들의 특별한 만남의 장, **인적네트워크 확장**
- ◆ 각 분야의 성공 인물 강사진 포진, **융 · 복합 마인드 함양**
- ◆ 우리 발전 방향은 우리 스스로! **에듀셀빙 워크숍**
- ◆ 창조기획자의 든든한 지원군, 전문가 **HOT-LINE**
-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힐링의 시간**

모집인원	100명내외	모집기간	2020년 4월 5일까지 접수
교육기간	2020년 4월 14일(화) 개강~12월 22일(화) 종강 (1년 과정 연 18회)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지원자격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리더가 되고 싶은 분	문의전화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8 / 010-3616-9903 062)650-2075 / 010-7597-3802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내 아젤리아홀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6시부터 식사 제공)		
수강료	38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광주은행 016-107-391900 (주)광주매스컴		